

제 1 교시

국어 영역

성명

수험번호



- 이 문제지는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항 수를 확인하십시오.
-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noqeli에게 있습니다.
- 이 문제지에 대한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측정은 일정한 양을 기준으로 다른 양의 크기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자로 길이를, 저울로 무게를 재는 것과 같이 측정은 매우 일상적인 행위이다. 측정은 의사결정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평가와 관련이 깊다. 대상이나 현상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평가라면, 측정 절차는 이에 비해 객관적으로 이루어진다. 의사결정을 위해 더 많은 측정 결과를 활용할수록 그 결과는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습도나 강수확률을 고려하지 않고 바깥의 온도만으로 외출을 위해 옷을 선택한 사람은 갑자기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측정할 수 있는 것과 측정할 수 없는 것은 직관적으로 구분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다. 물질적인 속성을 가진 대상은 감각으로 확인이 수월하여 측정 가능한 것인 반면, 도덕성과 같이 만질 수 없고 그 속성을 특정하기 어려운 대상은 측정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측정에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으로 귀결될 필요는 없다. 우리는 종종 도덕적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도덕적 추론을 끌어들이는다. 측정은 측정의 결과로서 얻어지는 추정 값을 실제 값에 일치시키는 과정이므로 도덕적 추론은 도덕성을 가늠하는 지표가 된다. 그런데 도덕성이나 태도와 같은 추상적 개념들은 단일한 수치적 지표로 기술하기가 복잡하다. 지표가 측정 대상의 실제 속성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측정이 쉬운 대상이라고 해서 지표와 실제 값이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책상의 높이만으로는 책상의 무게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 책상의 재질이나 너비 등의 변수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어떤 대상을 측정하고자 할 때는 그 대상의 속성을 파악해야 한다. 물리학을 예로 들어보자. 힘은 질량을 가진 물체의 속도를 변화시키는 요인이다. 힘을 측정할 때 중력을 상수로 설정하면 힘을 측정할 수 있다. 이때 중력은 표준화된 저항을 의미하고, 힘의 크기는 극복한 저항의 양과 동일하다. 즉, 수행된 작업량은 그 힘이 얼마나 많은 저항을 이겨냈는가로 측정할 수 있다. 그런데 심리 특성에서는 표준화된 저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심리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저항을 대신할 무언가를 찾아야 한다. 지능은 대표적인 심리 특성 중 하나이다. 만약 지능을 ‘문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지적능력’이라 정의한다면, 난도(difficulty)를 저항으로 설정할 수 있다. 극복한 난도의 양이 많고 질이 높을수록 지능이 뛰어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햇손과 메이는 행동주의에 의거하여 인격 특성이라 볼 수 있는 부정직함(dishonesty)을 측정하려 했다. 이들은 어떤 대상이 수행

한 부정직한 행위의 양이 부정직함의 지표가 된다고 가정하였다. 이때 ㉠ 부정행위의 저항은 그 행위를 하는 데 발생하는 어려움에 비례하며, 부정행위를 하게 만드는 동기에 반비례한다.

햇손·메이는 실험을 통해 부정직함의 경향성을 파악하고자 했다. 이들은 부정직함의 척도를 중립적인 입장을 기준으로 하여, 이에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을 양극단으로 하는 스펙트럼으로 구성하였다. 한 쪽 극단이 부정행위를 하지 않고서는 못 견디는 부류라면 다른 한 쪽은 그러한 행위를 단호하게 거부하는 부류이다. 또한 이들은 부정직함의 경향성이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 뒤, 이 분포 위의 일정한 위치에 있는 여러 과제들을 만들었다. 과제 달성의 어려움이라는 측면에서는 어떤 것은 어렵게, 어떤 것은 쉽게 설계했으며, 동기의 측면에 있어서는 어떤 것은 동기가 약하게, 어떤 것은 동기가 강하게 설정하였다.

햇손·메이는 이러한 기준 등을 바탕으로 구성된 척도를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이들은 인격 특성과 관련하여 수행된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인격을 측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인격이 평판에 반영되는 한에서, 그들의 연구 결과는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1. 글쓴이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상에 가치를 부여하는 행위는 일상적으로 행해진다.
- ② 측정의 대상이 반드시 복잡한 개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③ 직관에 따라 측정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 ④ 이상적인 측정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그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⑤ 지표를 통해 추정된 값과 실제 값 사이에 발생하는 불일치는 이례적으로 나타난다.

2. 윗글을 바탕으로 ㉠에서 추론한 것으로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 ㉠. 핫손과 메이는 수행된 작업량이 극복한 저항의 양과 같을 필요는 없다고 상정했겐.
- ㉡.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부정행위를 하는 데 제약이 많음에도 부정행위를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부정직한 사람이겠군.
- ㉢. 부정행위의 저항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은 부정직함에 수반되는 부정행위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수행해야 할 마땅할 이유가 있다는 의미겠군.

- ① ㉠                      ② ㉡                      ③ ㉢  
 ④ ㉠, ㉡                ⑤ ㉠, ㉡, ㉢

3.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심리 특성은 물리적 특성과 달리 표준화된 저항만으로 측정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 ② 어떤 대상의 속성을 토대로 그 대상을 측정할 때에는 저항의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 ③ 도덕성은 복합적인 개념이지만 측정 가능한 대상으로 간주할 수 있으면 단일한 지표만으로도 그 심리 특성을 정확하게 추산할 수 있다.
- ④ 핫손과 메이의 실험에 따르면 부정행위를 할 만한 동기가 부족한 상황에서 그것을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유발되는 부정행위는 그렇지 않은 행위에 비해 빈도가 낮게 나타나야 한다.
- ⑤ 핫손과 메이의 연구에서 적어도 한 번 이상의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비교적 동기가 명확하여 부정행위를 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하는 부류일 가능성이 높다.

[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성(性)의 뜻이 지극히 평범하면서도 지극히 정미(精微)하니, 비록 연장누독(連章累牘)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분명치 못할까 걱정되는데, 하물며 수십 자의 간략한 말로 어찌 분명히 이해하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러므로 과연 주신 편지에서 ‘손만 폼다 하면 문득 식색(食色)만을 움켜잡는다.’고 반박하셨으니, 이를 읽고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둔하지만 음식을 즐기고 색(色)을 좋아하는 것을 성명(性命)의 근본으로는 여기지 않으며, 내가 아무리 방자하다 하여도 이미 맹자에게 바로잡음을 받는 고자(告子)의 설을 거듭 수명(修明)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신 편지에서는 저를 이해하지 못하심이 어찌하여 이에까지 이르렀습니까. 인심(人心)에 기호(嗜好)가 있는 것이 형체(形體)에 기호가 있는 것과 같으니, 내가 기호를 말한 것은 형체의 기호를 빌어 마음의 기호를 증명한 것뿐입니다. 공자께서 시(詩)를 외고 말씀하시기를 ‘백성이 본디 가지고 있는 떳떳한 성품은 이 아름다운 덕을 좋아한다.’ 하셨으니, 이것은 이미 일찍 거론된 것이고 지금 내가 비로소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맹자가 성품을 논하면서 분명히 기호란 말을 빌어 설명하였으니, 맹자도 식색을 성품으로 여겼다고 하시겠습니까.

사람의 본심은 선을 즐기고 악을 부끄러워하니 이것이 바로 성선(性善)입니다. 그것은 의(義)를 좋아하고 악(惡)을 미워합니다. 노형께서도 시험하여 보십시오. 그 성품이 다른 사람과 더불어 다르다고 한 성품이란 글자는 분명 입의 성품입니다. 이미 입의 성품이 있다면 귀의 성품, 눈의 성품도 분명 모두 있을 것이니, 그렇다면 형체의 기호도 성품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후세에서 ‘식성(食性)’이니 ‘주성(酒性)’이니 하는 말이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서경』에 ‘성품을 절제하면 날로 선(善)한 데로 나아갈 것이다.’하였고 『예기』에 ‘육례를 닦아 민성을 절제한다.’하였습니다. 절성은 절욕(節慾)과 같은 말입니다. 이는 분명히 형체의 기호를 성품이라 이룬 것입니다. 『맹자』에 ‘마음을 조심스럽게 가지고 성품을 참아 자신의 부족한 바를 보충한다.’하였는데, 인성(忍性)은 인욕(忍慾)과 같은 말이니, 형체의 기호를 역시 성품으로 이룬 것입니다. 정경(正經)에 보이는 것이 이와 같고, 또 송(宋) 나라의 여러 선생들도 원래 본연(本然)의 성품을 성품으로 여기면서도 기질(氣質)의 성품도 성품이라 이룬하였으니, 이는 끝내 놀랄 만한 신조어가 아닙니다. 절성, 인성, 입의 성품이라 한 여러 성(性) 자는 바로 빌려쓴 것이고, 『주역』에 ‘성성(成性), 진성(盡性)’이라 한 것과 공자가 ‘성품은 서로 비슷하다.’ 한 것과, 맹자가 ‘성선(性善)’이라 한 여러 성 자는 바로 주인(主人)입니다. 옛날 육서(六書)는 원래 가차법(假借法)이 있는데, 하물며 그 뜻이 실지로 같은 것이겠습니까.

사람의 성품이 선을 좋아하고 즐기는 증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현재의 징험이고 그 하나는 필경(畢竟)의 공효입니다. 물욕에 빠져서 악(惡)을 하는 도적에게 어떤 모르는 사람이 청렴 결백하다고 칭찬하면 기뻐하니 그 성품이 선을 즐기는 것이 이와 같고, 물욕에 빠져 악을 하는 창기(娼妓)에게 책망하는 사람이 음란하고 더럽다고 나무라면 부끄러워하니 그 성품이 악을 미워함이 이와 같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유가 현재의 징험입니다. 송채(菘菜)의 성품은 오즙을 좋아하고, 마늘의 성품은 닭똥을 좋아하며, 벼의 성품은 물을 좋아하고, 기장의 성품은 조강(燥強)한

땅을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것을 얻은 것들은 짝이 나고 무성하며 번성하고 아름다워집니다. 사람들은 그 짝이 나고 무성하며 번성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고서 그 기호를 아는데, 이는 늙은 농민들이 자신하는 바입니다. 사람이 오늘 한 가지 선한 일을 행하고 내일 한 가지 의로운 일을 행하여 의를 쌓고 선을 쌓은 것이 오래되면 덕(德)은 그 경향을 따라 자연스레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로써 본다면 사람의 성품이 선을 편히 여기는 것이 마치 승채가 오줌을 편히 여기고 마늘이 닭똥을 편히 여기고 벼가 물을 편히 여기고 기장이 조강한 땅을 편히 여기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편히 여긴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즐기는 것이니, 이것이 필경의 공효입니다. 이로써 볼 때 성(性)이란 글자가 본래 기호라는 뜻으로 쓰여진 것임을 의심할 수 없습니다.

무릇 물건에 한 가지씩의 성품을 갖추어 주어 기호를 가지고 그 생명을 이루게 하는 것이 바로 천명(天命)입니다. 천명은 자연과 같기 때문에 모든 자연을 천성(天性)이라 하는 것이 또 고문(古文)의 원례(原例)입니다. 또한 본심(本心)의 전용(全用)을 논하건대, 선도 할 수 있고 악도 할 수 있는 이치가 있으며, 선을 하기는 어렵고 악을 하기는 쉬운 형세가 있으니, 이는 모두 성품이 아닙니다. 양웅(揚雄)은 선도 할 수 있고 악도 할 수 있는 이치가 있다 하여 성혼(性混)이라 하였고, 순경(荀卿)은 선을 하기는 어렵고 악을 하기는 쉬운 형세가 있다 하여 성악(性惡)이라 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성품 아닌 것을 성품으로 여긴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따로 전문(全論)한 것이 있으므로 지금 갖추어 기술(記述)하지 않습니다.

- 정약용, 「이여홍에게 보내는 답장」 -

4. 글쓴이의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식색의 시비와 관련해서는 성(性)만 언급하면 색(色)만 쥐어잡는 통념을 바로잡기 위해 고자의 설을 자신의 논거로 삼는다.
- ② 절성·인성·입의 성과 같은 옛 문헌의 용례를 들며, 감각 차원의 기호가 가리키는 것도 본래적으로 성(性)임을 밝힌다.
- ③ 필경의 공효를 경험적 증거로 제시함으로써 사람이 선을 좋아하고 악을 부러워하는 것은 기호의 성향임을 환기한다.
- ④ 고문에서 천성(天性)이 자연스러운 소질의 뜻으로는 쓰이지 않았음을 들며, 성(性)과 기호 사이에 어긋남이 없음을 강조한다.
- ⑤ 본심의 전용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성품의 정의를 논함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기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5. 윗글은 이여홍의 견해에 대한 정약용의 반박을 담고 있는 편지이다. 글의 내용으로 미루어 이여홍이 주장한 바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성을 본연의 성품과 기질의 성품이라 나누어 이룸하였다 하였으니, 어찌 형체의 기호를 곧장 성이라 하겠는가?
- ② 고사에서 감각의 기호로 비유함은 권선징악을 밝히려 한 문맥이라 하였으니, 어찌 입·귀·눈의 즐거움을 마음의 성향과 나란히 두겠는가?
- ③ 절성과 인성의 말은 성을 아끼고 욕을 누르라 함을 가르친 교훈이라 하였으니, 어찌 그 문구를 빌려 성을 곧 욕정과 동렬에 둔다 하겠는가?
- ④ 도적도 청렴이라 칭하면 기뻐하고 창기도 더럽다 꾸짖으면 부끄러워한다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처음에 성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후천의 익힘에서 비롯된 현재의 기색에 가깝지 않은가?
- ⑤ 입·귀·눈에 입맛이 있는 것은 천명(天命)이자 천성(天性)이요, 마음의 입맛 또한 의(義)를 쫓고 악(惡)을 경계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입장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A] 성(性)은 선한 것을 긍정하고 악한 것은 부정하는 기호의 성향이다.
- [B] 본연(本然)의 성선(性善)은 덕(德)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 [C] 고전의 용례에서 언급되는 덕목은 행위가 낳은 성취가 아니라 본성(本性) 자체로 이해해야 한다.
- [D] 성혼(性混)이 성악(性惡)이라 함은 성품이 아닌 것을 성품으로 여김을 의미한다.
- [E] 신체의 기호는 마음의 기호와 달리 성향에 따라 의(義)를 좋아하는 쪽으로 작동한다.

- ① [A]에 대해 이여홍은 동의하지 않겠군.
- ② [B]에 대해 정약용은 동의하겠군.
- ③ [C]에 대해 이여홍은 동의하고 정약용은 동의하지 않겠군.
- ④ [D]에 대해 정약용은 동의하지 않겠군.
- ⑤ [E]에 대해 정약용과 이여홍은 모두 동의하지 않겠군.

[7~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콜금리를 기준금리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따라서 통화정책의 운용이란 기준금리가 결정되었을 때 적절한 통화정책수단을 통해 콜금리를 정책금리 수준으로 일치시키는 과정이다. 콜금리 수준은 단기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콜금리가 결정되는 시장, 즉 지준시장은 통화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지준시장은 다른 부문의 금융시장과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으로 구성된다. 이 시장에서 가격변수라 할 수 있는 콜금리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서 결정된다. 이때 지준수요는 지준제도 하에 있는 예금은행으로부터 발생하는 한편, 중앙은행은 유동성을 조절하면서 지준공급량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 지준공급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인 화폐발행액은 각 경제주체의 판단에 따라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변수로서 지준공급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중앙은행의 자산규모가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민간의 화폐수요가 줄어들어 이를 예금은행에 예치하게 되면 예금은행은 이를 다시 중앙은행으로 전달한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은 전달받은 예치금을 지준 형태의 자산으로 보유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지준시장에 공급된 지준규모는 늘어나게 된다. 그런데 지준수요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 지준공급이 증가하면 콜금리가 정책금리를 하회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중앙은행은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과잉된 유동성을 흡수함으로써 콜금리를 정책금리 수준으로 회복시킨다. 이를 일반화한 것이  $RS = A - C$ 이다. 중앙은행의 보유자산 규모( $A$ )에서 화폐발행( $C$ )에 따른 지준만큼을 차감했을 때 지준시장에서 금융기관들이 거래가능한 총 지준규모, 즉 순지준규모( $RS$ )가 산출된다. 시장에 유동성이 과도하다면 중앙은행은 순지준규모가 지준제도에 의해 결정되는 지준수요( $RD$ )를 초과하는 만큼의 유동성을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흡수하게 된다. 한국은행의 경우 부족하거나 과도한 유동성을 통제하기 위해 공개시장운영 제도에서 환매조건부채권 매각과 같은 단기 조절수단과 통화안정증권 발행과 같은 장기 조절수단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

최근 세계적으로 CBDC라 불리는 중앙은행 기반 디지털화폐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기능적 측면에서 CBDC는 지급결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의 현금, 즉 실물화폐와 유사하다. 그렇다면 CBDC 도입은 어떠한 변화를 불러올까? 이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변수를 정의할 필요가 있다.

$$M = C + D, k = \frac{C}{D}, H = C + R, z = \frac{R}{D},$$

$M$ : 통화량,  $C$ : 민간보유화폐,  $D$ : 예금은행이 수신한 총예금

$H$ : 본원통화,  $R$ : 예금은행이 중앙은행에 예치한 총지준

민간보유화폐와 총예금의 합한 것이 통화량이라면 핵심 가늠자로 불리는  $k$ 는 현금과 예금 간 비율을 나타낸다. 다시 말해 중앙은행의 자산매입으로 인해 민간부문의 금융자산인 본원통화가 공급되었을 때 민간에서의 현금보유와 예금예치, 이들의 양자 간 비율이 곧  $k$ 이다. 또한 예금은행은 예금 중 초과지준율( $z$ )에 해당하는 만큼을 중앙은행에 지준으로 예치하고 그 나머지를 다시 민간

에 대출해준다. 실물화폐만 발행하는 기존의 체제에서는 중앙은행이 자산을 매입하는 만큼 본원통화가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CBDC가 도입된다면 현금과 CBDC가 병존하게 되는데, CBDC는 기능적 차원에서 중앙은행의 부채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CBDC는 현금처럼 예금은행의 지준을 차감시키는 항목이다. CBDC( $E$ )가 추가된 체제에서 본원통화는  $C + R + E$ 로 구성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CBDC에 대한 상대적 선호도가 높아질수록 대체재인 실물화폐와 예금이 감소하면서 대출이 줄어들며, 통화가 창조되는 규모 또한 줄어들게 된다.

7.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콜금리를 기준금리 수준과 일치시키는 것이 통화정책의 목표 중 하나이다.
- ② 지준시장에서 콜금리는 지준수요와 지준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수준이다.
- ③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수단을 통해 유동성을 조절하면서 지준공급량을 관리한다.
- ④ 지준수요는 지준제도의 제약을 받지않는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예금의 총합이다.
- ⑤ 단기금융시장은 콜금리 시장과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 작동한다.

8. [A]를 바탕으로 X국 경제 상황을 평가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X국은 현재 민간의 화폐수요가 증가하여 예금은행에 현금을 인출하려는 화폐수요자가 많다.

- ① 중앙은행은 예금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지준을 차감하는 대신 은행들로부터 화폐를 발행받아 화폐수요자에게 지급하겠군.
- ② 현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중앙은행이 보유한 지준 형태의 자산이 감소한 결과, 콜금리가 기준금리를 초과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군.
- ③ 민간의 화폐수요가 감소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중앙은행은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과잉된 유동성을 흡수함으로써 콜금리를 정책금리 수준으로 회복시켜야 하겠군.
- ④ 민간의 화폐수요가 감소한 경우와 달리  $C$ 가 증가한 상황이므로  $A$ 의 변동과 무관하게  $RS$ 가 줄어들겠군.
- ⑤ 지준제도에 의해  $RD$ 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면 중앙은행은  $RD - RS$ 의 크기에 해당하는 부족한 유동성을 통화안정증권 발행을 통해 공급해야 하겠군.

9.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학생의 말에서 A~C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학 생:** 실물화폐만 발행하는 체제에서 예금은행은  $z$ 를 고려해야 해. 가령  $z = 0.3$ 이고, 누군가 은행에 100만권의 예금을 맡기면 민간으로 빠져나가는 대출은 ( A )일거야. 한편 CBDC가 도입된 체제에서 중앙은행의 자산규모 변동이 없다고 하자.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CBDC가 현금을 완전히 대체한다고 가정했을 때 순지준규모( $RS$ )는 실물화폐만 발행하는 체제에서의  $RS$ 와 비교했을 때 ( B )거야. 이번에는 동일한 조건 하에서 CBDC가 예금을 완전히 대체했을 경우를 따져보자. 이 경우에 민간보유화폐( $C$ )는 불변이므로  $RS$ 는 CBDC가 현금을 완전히 대체하는 체제에서의  $RS$ 보다 ( C )거야.

- |   | A   | B   | C  |
|---|-----|-----|----|
| ① | 70  | 줄어들 | 클  |
| ② | 70  | 같을  | 작을 |
| ③ | 30  | 같을  | 클  |
| ④ | 30  | 늘어날 | 작을 |
| ⑤ | 100 | 줄어들 | 클  |

[10~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기묘사화는 중종 14년 기묘년에 일어난 사화이다, 조광조를 중심으로 중앙 정계에 진출했던 진보적 사림파들이 신권을 장악하여 왕권을 위협하자, 이를 타도하기 위해 깊은 밤 비밀리에 축출 작업이 전개되었다. 이 사화는 여러모로 이해하기 쉽지 않은 사건이었기에 다양한 후속 연구가 제시된 바 있다. 주도자와 관련해서는 심정, 남곤, 홍경주와 같은 대신들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었고, 국왕 중종의 주도 하에 일어났다고 보는 견해도 있었다.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정국공신 개정과 현량과 등의 개혁안이 지목되기도 하였으나 성리학에 관한 이념적 요인이나 삼사의 역할 확대와 같은 제도적 요인을 강조하는 견해도 있었다.

기묘사화가 발생하기 전에, 기묘사림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 중종 12년 이성언의 상소와 중종 13년 조계상의 발언이 대표적이며, 이는 군자소인 논쟁 촉발의 계기가 되었다. 특히 조계상의 말에서 기묘사림을 ‘소인’으로 칭하여 조정에서 축출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자, 기묘사림은 구세력이라 말로 ‘소인’이라며 적극적으로 반격하였다. 이성언이 상소를 올린 이유는 이행을 지지하기 위해서였다. 신씨 복위 요청 상소로 정국에 파란이 일자, 대사간으로 있었던 이행은 그들의 처벌에 앞장서고자 했다. 그러나 조광조의 비판을 받아 오히려 자신이 체직되었고, 이것이 이행과 기묘사림 간 충돌의 시작이었다. 중종 12년 이행이 대사헌에 제수되자마자 신료 가운데 이행을 옹호하는 대신과 기묘사림이 포진한 대간을 중심으로 조정은 격랑에 휩싸였다. 이성언은 이러한 상황에서 기묘사림의 정책이 너무 성급하다는 것과 그들의 정치적 배타성을 비판하는 내용의 소를 올렸으나 결과적으로 그의 상소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다. 대간은 이성언의 소가 단지 이행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류를 모해하는것이라 파악하였고 이에 죄를 부여할 것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대소 신료의 화합을 추구한 중종은 오히려 대간을 모두 교체토록 하였고, 이행을 예조참의에 올림으로써 기묘사림의 반발심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대표적으로 김정이가 올린 상소는 그 심정을 지레짐작하게 한다. 또한 김정국은 ‘인(仁)을 헤치는 자를 적이라 한다’를 변용하여 ‘우리 임금의 요순이 될 수 없다’라고 언급한 이성언의 언행으로부터 그를 중종의 적이라 주장했다. 기묘사림에게 요순지치의 회복은 현실적이지도 당위적 목표였던 것이자 동시에 조금도 늦추지 말고 서둘러 추진해야 할 목표이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중종도 이성언의 말을 비판하며 호응하였다.

한편 중종 10년 이래 기묘사림이 추진한 예제(禮制) 개혁과 사전(祀典) 개혁 정책은 조종지법을 준수해야한다는 대신들의 관념과 정면으로 충돌하였다. 소격서 폐지안에 대해서는 신료들 사이에 별다른 이견이 없었지만 친영례와 모현례 시행, 문소전과 연은전 폐지와 같은 문제야말로 기묘사림과 반대자들 사이에서 상당한 입장 차이를 보였던 사안들이었다.

한 번은 중종과 대신들이 보여 조정의 불화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문근은 대신이 대간의 공론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대신 측에 책임을 돌렸다. 이에 반대한 정광필은 대간에 있는 자들이 옛날의 책만 읽고 세상의 변화를 보지 않으며, 공부한 바를 곧바로 행한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대간의 정책이 지닌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장순손 역시 조종지법을 준수해야 하는데 현실에 맞지도 않은 삼대의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기묘사림이 그것을 바꾸

려 들기 때문에 대신과 대간이 불화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요순지치의 회복이라는 기묘사림의 기획은 ‘고례’와 ‘고제를 당대 조선의 구현하려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종의 혼례에 있어서는 친영례와 묘현례를 실시하고자 했고, 고대 향거리선의 취지를 계승하여 현량과를 시행하고자 했다. 국왕의 친영례와 묘현례는 조선시대 의례를 규정한 『국조오례의』에서 찾아볼 수 없었고, 실제로 거행된 적도 없었다. 현량과의 경우 조선의 법전인 『경국대전』에 규정된 기존의 천거제와 달리 천거에 과거의 명목과 위상을 부여하려는 의도였다. 기묘사림은 『국조오례의』에 마련된 문소전과 연은전을 고제에 맞게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대하여 대신들은 조종지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설파했으며, 이에 기묘사림은 조종지법이라도 변통해야하지 않겠냐고 다시 맞선 것이다. 결국 중종 14년 11월 기묘사화 발생 이후 기묘사림은 봉당을 결성했다는 죄목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았지만 조종지법의 변경 또한 그에 못지않은 죄로 간주되었다.

#### 10.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기묘사화는 예측하지 못한 사건의 발생으로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이 아니었다.
- ② 기묘사화의 주도자를 조광조 중심의 세력으로 파악한 후속 연구가 존재한다.
- ③ 이행은 이성언의 상소로 조정에 논란이 일어났을 당시에 기묘사림의 처벌에 적극 협조하였다.
- ④ 이성언과 조계상은 모두 신씨 복위 요청 상소로 인해 이행이 체직된 것을 안타까워했다.
- ⑤ 기묘사림이 포진한 대간은 중종이 이성언을 옹호하려는 의도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

#### 11.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평가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 신이 듣기에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의원이 병을 다스리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뛰어난 의원은 성질이 부드럽고 화평한 약으로 차분하게 그것을 치료하여 오장과 원기를 보호함으로써 명을 기릅니다. 하지만 용렬한 의원은 즉시 효과를 보려고 효험이 빠른 조열(燥熱)한 약으로 급하게 그것을 치료하여 끝내 정혈(精血)이 마르고 원기가 손상되어 명을 잃게 합니다.

『자료 ㉠』

- 지금 그의 상소는 뜻을 세운 것이 음험하고 말을 꾸민 것이 어지러우니, 이행을 구하고 보호하려는 것뿐만 아니라 그 뜻이 실로 조정을 교란하고 선류(善類)를 모함하여 위로는 성지(聖志)를 흔들고 아래로는 사기(士氣)를 저해하려는 것으로서, 참소하는 간사한 정상이 드러났습니다.

『자료 ㉡』

- 이성언의 말 가운데 ‘단번에 요순의 지경을 만들고자 한다’라고 말한 것은 매우 무식한 말입니다. 신하가 임금의 인도함에 반드시 요순을 기약해야지, 요순이 될 수 없다고 여긴다면 그런 마음을 미루어 나가 어떤 일인들 하지 못하겠습니까?

『자료 ㉢』

- ① ‘이성언’은 기묘사림을 중심으로 한 대간이 정치적 배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자료 ㉠을 활용할 것이다.
- ② ‘김정’은 기묘사림을 ‘소인’이라 부르며 대간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이성언을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유를 제시하기 위해 자료 ㉡를 활용할 것이다.
- ③ ‘중종’은 이행에 대한 대간의 공격이 지나쳤다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자료 ㉠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자료 ㉡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다.
- ④ ‘중종’은 요순지치가 군주가 추구해야 할 자세라고 생각한 데서, 이성언의 상소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자료 ㉢를 자신의 논거로 삼을 것이다.
- ⑤ ‘김정국’은 대신과 대간의 화합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 데서, 자료 ㉡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자료 ㉢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다.

12. 기묘사회를 대신과 대간의 대립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볼 때 윗글에 제시된 입장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행은 소인이 아니며, 그에 대한 논박이야말로 문제라는 점에 대해서 문근과 정광필의 입장은 일치하지 않겠군.
- ② 삼대의 제도는 조선에 적용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조종지법을 엄수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장순손은 동의하지 않겠군.
- ③ 대간이 내세운 요순지치의 회복과 관련하여 심정과 남곤은 모두 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한 목표이거나 허울뿐인 명분이라고 보겠군.
- ④ 고제에 맞게 소격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조광조와 조계상의 입장은 상충하겠군.
- ⑤ 전례없는 제도를 통해 인재 등용을 제도화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관점에서 이상언은 현량과의 시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겠군.

[13~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착한 소비, 제로웨이스트(Zero waste)와 함께 최근 소비의 한 트렌드로 급부상하고 있는 미닝아웃(Meaning out)은 자신의 신념을 기초로 소비하는 것을 말한다. 신념이란 도덕적 용어로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과 결부된다. 이는 경제적 합리성을 고려하여 상품을 선택하는 것과 오로지 타인에 대해 물욕을 과시하려는 수단으로서 이루어지는 소비와는 다르다는 점에서 독특해 보인다. 신념을 토대로 한다는 점에서 개인적 차원을, 또한 사회적으로도 선한 영향력이 행사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차원을 모두 포괄하는 미닝아웃은 크게 주목받고 있다.

미닝아웃에 대해서는 소비가 개인의 선택을 통해서 신념을 구현할 수 있다는 일종의 환상을 심을 뿐만 아니라 자기지배적 경향까지 보인다는 것이 그 한계로 지적된다. 또한 시장질서를 수용하는 소비의 근본적 한계로 인해 개인의 다양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한계점에 대해서는 통찰이 요구되기도 한다.

소비 개념에 대한 논의는 보드리야르를 빼놓을 수 없다. 그에 따르면 소비는 개인적 차원에 국한되지 않는다. 소비의 대상이 상품에 내재된 기호에 대한 소비라는 점에서 그는 소비를 일종의 권리로 인식한다. 이 인식은 인간에게 주어진 권리가 소비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함축한다. 이렇게 본다면 제도상으로 보장된 민주주의는 겉보기에 구체적이지만 실질적으로 형식적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으므로 한 개인이 삶의 진정한 가치란 무엇인가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소비의 중요성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만 이 행위는 '소비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인간으로 변환시키는 과정이 동반되어야 가능하다.

현대사회에서 소비의 의미는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신자유주의가 출범한 이후 삶은 전혀 다른 측면에서 조망을 받을 필요가 있었다. 자신의 공동체와 직업에서 애착을 찾는 것은 불가능해졌고 그 대신 새로운 정체성에 대한 모색이 불가피하게 요구되었다. 현대의 소비는 욕망의 표현 내지 자유의 실현으로 이해되고 있다. 특히 젊은 연령층일수록 소비를 자신의 삶과 일치시키려는 경향이 강화된다. 소비사회 안에서 성장한 이들은 그렇지 않은 세대에 비해 소비에 의한 행복의 크기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이 물질적 풍요로움만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러한 가치를 추구함으로써 얻게 되는 행복의 가치를 의심하며, 시간이나 경험과 같은 비물질적인 요소를 고려하기도 한다. 이는 본질적으로 비용의 크기와 관련되어 있다.

한편 과시를 목적으로 소비하는 대신 내면의 만족을 위한 경향은 주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 이른바 '소확행'이 그러한 경향 중 하나이다. 개별 소비자가 자신의 신념을 기초로 하는 미닝아웃과 같은 유형은 소비 자체로부터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다.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개인적 소비가 타인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결과적으로 사회적 개선을 돕기도 한다. 설령 그것이 자신이 의도한 바가 아니더라도 말이다. ㉠ 이처럼 미닝아웃은 개인적 가치 소비로부터 이타적 가치 소비로의 진화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선택 중에는 가치 소비와 같이 개인의 신념을 기초로 한 행위가 포함된다. 그러나 소비 그 자체가 시장의 지배를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념의

표현은 결국 소비 차원을 넘을 수 없다는 명백한 한계를 갖는다.

13.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과시를 목적으로 하는 소비 유형은 개인의 신념에 바탕을 둔다.
- ② 개인적 차원에서 진정한 신념들 표현하지 어렵다는 점이 소비가 갖는 한계이다.
- ③ 미닝아웃은 소비 차원을 넘어서 새로운 가능성을 개방하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 ④ 보드리야르는 소비를 권리로 간주하여 소비 단계에서 인간의 권리가 생겨난다고 본다.
- ⑤ 노년 세대는 청년 세대에 비해 물질적 소비로 얻게 되는 행복의 크기가 크다.

14.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신의 신념을 기초로 한 행위가 필연적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 ② 물질적 요소를 추구하는 행위보다 비물질적 요소를 추구할 때 행복의 크기가 높게 체감되기 때문이다.
- ③ 작지만 확실한 행복과 같은 자기과시적 소비 유형이 타인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기 때문이다.
- ④ 개인적 신념들 부정적으로 여기는 타인이 많아질수록 사회에 전파되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이다.
- ⑤ 실행 단위가 개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소비일지라도 선한 영향력이 제공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15.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미닝아웃은 표면적으로는 개인의 윤리적 선택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긍정적인 소비 행동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이 의도하는 바에 부합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배 방식을 강화하는 도구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기에 모든 소비는 이러한 권력에 종속된다. 개인의 소비 행위를 통해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시도는 소비자의 자유와 선택이라는 환상을 제공함으로써, 신자유주의적 통치의 일환으로 작동한다. 그 실상은 소비자의 정체성을 시장의 논리에 맞추어 재편함으로써 체제의 재생산을 강화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본다면 개인에게 제공된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닌 자유의 감정일 뿐이다. 이 견해에 대해 A와 B는 미닝아웃의 의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

A: 모든 소비 행위가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미닝아웃을 통해 윤리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면 통치성에 관점에서든 우리는 더 큰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유의 감정은 진정한 자유에 가까워지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모든 것이 권력의 산물이라면 우리는 어떻게든 내부에서 자유를 찾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의식적으로 소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B: 미닝아웃은 결국 시장의 논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선택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시장에 더욱 깊이 빠져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한다고 믿지만 그 선택 자체는 이미 권력에 의해 수반된 결과입니다. 이는 가치소비가 근본적인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기 보다는 오히려 현재의 지배 구조를 공고히 하는 데 일조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 ① A는 미닝아웃의 실행 단위가 개인이 아닌 시장 질서의 메커니즘 그 자체라고 본다.
- ② B는 시간과 경험과 같은 요소를 추구하는 소비 행위가 진정한 자유를 찾는 과정의 일부라고 본다.
- ③ A는 B와 마찬가지로 통치성에 의한 지배 방식을 인정하면서도 가치 소비가 소비 차원을 초월하면 진정한 자유에 도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④ B는 A와 달리 어떤 소비 유형이든 시장의 지배 질서 내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신념에 바탕을 둔 소비가 결국 권력 체제의 강화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 ⑤ A와 B는 시장 질서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미닝아웃이 본질적으로는 개인 단위의 실행과 소비의 영역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전제에서 논의를 한다.

\* 확인 사항

- noqeli의 허락 없이 문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 복제, 배포, 출판, 전자출판 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합니다.